

朝鮮朝首服의 풍속사적 고찰

趙孝順

目 次	
I. 序 論	2) 땡기
II. 歷史的 概觀	3) 땔잠과 첩지
1. 修髮의 風俗	4) 뒤편이
1) 毛髮管理	5) 花冠과 頭理
2) 修髮道具	3. 首飾의 禮儀風俗
3) 修髮形態	III. 結 論
2. 首飾의 風俗	
1) 비녀 [笄]	

I. 序 論

首服이란 복식 가운데서 특히 머리의 치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머리치장이라면 修髮뿐이 아니고 갓을 쓰는 일로부터 화장까지를 포함하는 명칭이다.¹⁾ 이것은 흔히 首飾이나 頭飾 등으로도 사용 되는 말이나, 여기서는 朴珪壽의 「居家雜服攷」, 尙秉和의 「歷代社會 風俗物考」 등 옛 전적에도 보이는 '首服'이란 용어를 채용하기로 하고 화장과 관모는 이 논문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인간이 머리카락에 신경을 쓰게 된 기원은 확실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農耕의 정착생활이 가져다 준 여유가 용모를 미화시키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본능을 발동시켰을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복장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首服이 차지하는 위치는 美學的으로나 정신적 및 예의관에 입각해서도 중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冠帽 및 쓰개류는 제외하고 毛髮관리에서부터 수발 도구 및 형태, 그리고 首飾의 종류, 首服의 예의

등에 대한 고찰과 그의 풍속을 조사하여 선인들의 의식구조를 살펴보고 현대 衣生活과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복식사 발전에 다소나마 이바지하고자 한다.

II. 歷史的 概觀

모발정리의 풍속은 「文獻備考」에, 단군 원년부터 編髮法을 가르친 데서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일찍부터 머리모양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編髮 풍속은 다시 땡아 느렸던 머리를 한데 뭉쳐 머리꼭대기에다 둥글게 묶는 椎髻 형태로 변화하여 갔다. 이것은 이른바 오늘날의 상투와 유사한 것이다.

상투의 首髮法은 大田出土 農耕文青銅器에, 성인 남자는 상투를 하고 미혼남자는 被髮한 모습을 하고 있어 이곳에서 살필 수 있다.²⁾ [그림 1]·[그림 2] 그런데 이때 발굴된 청동기는 연대 미상이나 청동기시대의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므로, 상투의 역사는 대략 2~3세기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1) 支那歷代風俗事物考, 秋田成明 譯, 大雅堂版, 1943. pp. 29 - 30.

2) 大田 槐亭洞出土 農耕文 青銅器, 김 동욱, 백제의 복식, 1985. p. 1.



[그림 1] 농경문 청동기 [그림 2] 동자의 쌍계 (신라시대)

이러한 椎髻 형태는 부락공동체를 이루어 꽤 안정된 생활을 영위했다고 볼 수 있는 三韓시대로 오면서,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에서 또 다른 머리형태를 산출해 내기에 이르렀다. 『海東釋史』에 따르면 “三韓의 부인은 盤髮하였는데 모두 鴉髻를 지었고, 餘髮은 늘어뜨렸으며, 여자는 말아서 뒤에 드리운다.”³⁾고 하였다. 여기에서 “盤을 서린다”는 의미를 풀이하면 盤髮은 일종의 ‘엮은머리’로 볼 수 있으며 ‘여자’는 부인과 대칭되는 ‘未婚女’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修髮 풍속은 국가의 체계가 갖추어지고 문화와 생활수준이 높아진 삼국시대에 이르러 보다 다양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제 이러한 修髮 형태를 시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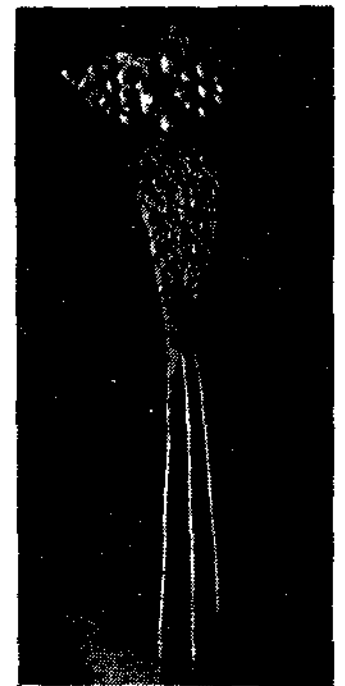
고구려 사람들의 修髮 형태는 문헌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古墳壁畵를 통해 그 형태를 알아볼 수밖에 없다. 고분에 보이는 고구려 사람들의 修髮 형태는, 여자의 경우 모발을 뒤로부터 머리 앞쪽으로 감아 돌리어 끝을 정수리 가까이에 꽂은 엮은머리, 머리를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위로 하고, 둘은 좌·우 두 뺨 근처에서 각각 묶어 내려뜨린 鬍髻머리, 모발을 뒤에서 묶어준 묶은머리, 모발을 뒤통수에서 낮게 들어준 쪽머리, 정수리 가까이에 두 개의 상투를 우뚝 솟게 한 쌍상투, 모발을 자연스럽게 내려 빚은 내린머리 등이다. 또한 남자는 여자의 修髮과 동일한 형태인 쌍상투와 豎髻式으로 된 상투가 보이며, 되는 대로 풀어 헤친 내린머리도

보인다. 이 중 쌍상투(雙紒)는 미혼 남녀의 대표적인 머리형태로 신라시대의 많은 童子석상에서도 그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림 3]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折風·巾冠·笠·투구 등으로 머리를 장식한 모양도 있다.

고구려의 修髮 형태를 古墳壁畵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자의 修髮 형태 중 엮은머리는, 자신의 머리만을 정수리 가까이에 엮어 빚는 작은 엮은머리와, 자신의 머리에다 加髮을 드려 빚고 그 위에 장식 비녀(釵)를 꽂는 큰 엮은머리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큰 엮은머리(高髻)는 安岳三號墳 前室 西側室人과 시종, 같은 고분 前室 東側室의 廚房人과 방아찡는 여인, 德興里古墳 前室北壁의 시종과 같은 고분 전실 天井의 織女와 王女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작은 엮은머리는 덕흥리 고분 通路 東壁의 시녀, 修山里古墳 西壁의 귀부인, 雙楹塚 東壁의 시종과 두 여인, 같은 고분 主室 東壁의 밥상을 든 여인 등에서 볼 수 있다[그림 4]



또한 淸安현 三室塚 第一室 南壁 왼쪽의 여인과 용강군 第一號墳 玄室 東壁에 보이는 여인의 수발 형태는 鬍髻머리, [그림 4] 金界 淸安현 각저총 주실 奧壁 두번 삼족차(백제) 재의 여인과 용강군 지운면 쌍영총 羨道 東壁에 보이는 세 여인의 수발 형태는 쪽머리이다.

그밖에 묶은머리는 淸安현 무용총 주실 右壁 食床을 받든 소녀에게서, 내린머리는 淸安현 각저총주실 북벽 시종에게서, 쌍상투는 中化군 第四號墳의 소녀에게서 각각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남자의 경우 쌍상투는 中化군 第四號墳 입구 東壁과 西壁의 남자에게서 볼 수 있으며,

3) 韓致淵, 海東釋史, 卷第二十, 禮志三.

수계형의 상투는 증안현 17號墳 上部의 남자에게서 볼 수 있다. 또한 내린머리는 주로 通溝지방의 벽화에서 볼 수 있는 바, 三室塚 第一室 南壁의 騎馬人과 무용총 주실 동벽의 樂人과 舞踊人에게서 볼 수 있다. 그밖에 남성의 수식을 살펴보면, 幘을 쓴 모습은 안악 3호분 주실 廻廊行列圖의 步卒과 기마인, 덕흥리 고분 전실 북면과 현실 남벽의 시종, 같은 고분 우행렬도의 기마인, 大安里一號墳前室西壁의 시종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幘의 경우, 특히 뿔이 난 모습과 같은 것은 안악 3호분 전실 서측실의 시종, 덕흥리 고분 현실 남벽의 官吏, 같은 고분 서벽의 太守와 通事史 前室天井의 神仙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冠을 쓴 모습은 안악 3호분 전실 서측실의 주인, 덕흥리 고분 전실 북벽의 墓主, 쌍영총 주실 북벽의 남편, 通事史 前室天井의 神仙, 鎧馬塚 玄室 西壁의 貴人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밖에 龕神塚 前室人物圖의 3명 중 2명과, 쌍영총 동벽의 시종 등은 折風을 쓰고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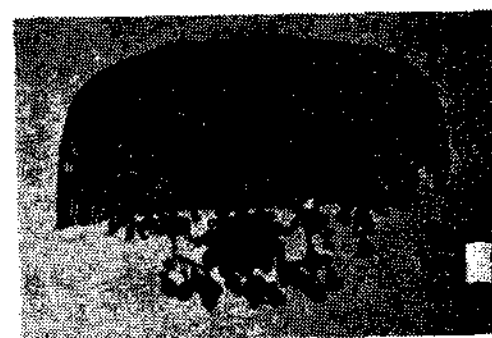
아울러 이들 벽화에서는 巾을 쓰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형태는 덕흥리 고분 현실 남벽의 시종과 같은 고분의 行列圖의 북치는 사람·기마인·步行人·전실 천정의 수렴인·현실 남벽의 심판인·기록인·경기인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의 벽화에 나타난 수발 형태와 諸冠帽를 도표화하면 <表1>과 같다.

그런데 고구려 사람들의 이러한 修髮 풍속은 단순히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목적 외에,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곧 「北史」에 따르면 “고구려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折風을 썼는데, 그 모양이 고깔과 같았고, 士人은 두 개의 새깃을 더 꽂으며, 貴人은 그 冠을 鬮骨이라 말하는데 자주빛 비단을 많이 써서 이를 만들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다.”⁵⁾고 했다. 또한 「新唐書」에는 고구려의 임금의 다섯 가지 채색 옷을 입고 흰 비단으로 만든 冠을 만들어 쓴다고 하였다.

또 가죽띠는 모두 금테두리를 하고 大臣은 푸른 비단으로 관을 만들어 썼으며, 다음 사람은 붉은 비단으로 관을 만들어 쓰는데 양쪽에 새깃을 꽂고 금·은을 섞어 가장자리를 꾸민다고 했다.⁶⁾

백제 부인들의 修髮 형태는 중국의 문헌에서 그 단편적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먼저 「北史」백제條에 “여자는 머리를 뒤로 땡아 느리되 혼례를 하게 되면 두 가닥으로 나누어 머리 뒤에 서린다.”⁷⁾고 했다. 또한 「隋書」에도 “부인은 粉 하지 않고 머리를 땡아 뒤로 늘어뜨리고, 出嫁하면 두 갈래로 나누어 머리 뒤에 서린다.”⁸⁾고 하였다. 이밖에 「周書」百濟傳에는 “미혼녀들은 머리를 땡아서 머리 위에 둥그렇게 엮고 한 가닥을 뒤로 내려뜨려서 맵시를 났으며, 결혼한 사람은 머리를 둘로 나누어 머리 위에 엮고 다닌다.”⁹⁾고 하였다. 이상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修髮 형태는 기혼녀는 머리를 둘로 나누어 머리 위에 엮는 형태였으며, 미혼녀는 머리를 땡아서 뒤로 늘어거나, 땡은 머리를 둥그렇게 엮은 후 한 가닥을 뒤로 내려뜨려 기혼녀와 구별이 되게끔 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자의 修髮 형태는 「漢代の文物」에 “백제 무녕왕능에서 爵釵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봉황새를 장식한 비녀의 일종으로 머리를 위에 엮고 대각선으로 마주 질러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물건이다.”¹⁰⁾고 한 것으로 미루어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모두 위로 끌어올려 한데 묶는 수계식(豎髻式) 상투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5]



[그림 5] 장식빗(신라)

신라의 修髮 형태 역시 중국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東京雜記」에 “신라 때에 國都의 북방이 虛缺하여 여자들이 뒤통수에 쪽을 찌고 이름하기를 뒤쪽(北髻)이라고 하였으니 지금도 그러

4) 高句麗 修髮 形態는 劉鳳榮의 ‘婦女髮制의 變遷’, 李如星의 ‘朝鮮服飾考’, 金容文의 ‘우리 나라 修髮에 關한 研究’ 中 表 4-1과 4-2를 參考로 하였음.

5) 三國史記, 雜志二, 服色條 再引用.

6) 三國史記, 雜志二, 服色條 再引用.

7) 北史, 卷九十四, 列傳, 百濟項. 「女辨髮垂後 已出嫁則分爲兩道 盤於頭上」

8) 隋書, 卷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婦人不加粉 辨髮垂後 已出嫁則分爲兩道盤於頭上」

9) 周書, 卷四十九, 列傳, 百濟傳. 「在室者 編髮盤於首 後垂一道爲飾 出嫁者及分爲兩道焉」

10) 林巳奈夫編, 漢代の文物, 上卷, p. 85.

〈表 1〉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首髮과 首節

년대	수발과 수식 벽화인물	남 자							여 자					인 원		
		관 모				수발형태			관모와 수발형태							
		관	책	절풍	건	상투	푼기명 머리	내린 머리	기타	큰 전리	없 은 머리	없 은 머리	푼기명 머리		쪽 머리	묶은 머리
	王室騎馬人과 步率			4	1				3							14
安兵三號墳 (357)	冬壽墓 주인과 세여인									4						4
	서측실 주인 부부와 시종	1	2							5						8
	측실 廚房人과 방아짚는 여자									2						2
德興里古墳 (408)	前室北壁 墓主와 侍從	1	2							2						5
	玄室南壁 관리와 시종		5		3											8
	西壁 太守와 通事史		12													12
	行列圖 鎧馬騎士	5	4													9
	軍樂遂와 복치는 사람				3											3
	騎馬人		1		2											3
	步行人		2		1		1									4
	전실천정 狩獵人, 牽牛織女				5					1						7
	南壁狩 狩獵人				3											3
	通路 東壁 牛車夫						2									
	通路 東壁 侍從										1	1				2
	玄室 北壁 牛車夫						2									2
	玄室 北壁 侍從						1									1
	玄室 西壁 審判人				2											2
玄室 西壁 競技人				4											4	
前室 天井 神仙										2					3	
前室 天井 王女		1														
大安面里 1호분(5C)	前室 西壁 侍從		4													4
	前室 非壁 侍從		3													3
龕神塚(5C)	前室 人物圖 3人			2												2
天王地神塚 (5C)	主室 北壁 婦人					1				1						2
	主室 東壁 仙人					1				1						2
修山里 5C	西壁 貴婦人										1					1
	東壁 人物圖		2													2
	동벽 두남자				2											2
藥水里(5C)	侍女									2						2
三室塚(5C)	제 1실 남벽 주인과 貴女					1					1					2
	제 1실 남벽 주인과 侍女										1					1
	제 1실 남벽 주인과 騎馬人							1								1
	제 3실 동벽장사			1											1	2
双楹塚 (5C末)	主室 北壁 夫婦															1
	主室 北壁 侍女	1														4
	東壁 貴人												1			1
	東壁 侍從			1							3					4
	東壁 두여인										2					2
	主室 貴婦人										1					1
鎧馬塚 (6C初)	玄室 西壁 貴人	1														1
	현실 서벽 마부와 선두인	1		1												2
角抵塚 (6C初)	主室 東壁 壯士			2							2					4
	主室 北壁 婦人										1					1
	主室 侍從													1		1
	奧壁 女人								1							1
舞踊塚	주실 동벽 귀인과 시녀								1							1
	주실 동벽 樂人			2			2	2								6
	주실 동벽 舞踊人			1			3	1								5
	주실 동벽 天井貴人							3								3
通溝四神塚 (6C末)	玄室西壁 仙人							2								3
	羨道 東壁 守門神將					1										1
通溝17號墳 (7C初)	주실 북벽 주인과 손님	1												2		3
	주실 북벽 侍從				1										1	2
	주실 북벽 跆拳道人					2					1			2		3
계		13	50	14	27	6	6	9	8	2	17	14	1	1	7	174

하다.”¹¹⁾고 하였는 바, 이는 즈안현이나 용강군의 벽화에서 볼 수 있었던 쪽머리와 동일한 형태일 것이다. 또 이러한 쪽머리 외에도, 「隋書」東夷新羅條에는 “부인은 머리를 땅아 머리에 두르고, 여러 가지 비단과 구슬로써 장식한다.”¹²⁾했으니 역시 고구려 벽화에서 보이던 엷은머리와 둘레머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부인들의 修髮 형태가 엷은머리 혹은 둘레머리였음을 추측케 하는 기록은 「北史列傳」이나 「舊唐書」 등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기록을 볼 수 있어, 이러한 형태가 신라 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修髮 양식이었음을 추측케 한다.

그런데 엷은머리 형태는 고구려 벽화에서 이미 보았듯이, 本髮에다 加髮을 드러 높고 크게 만드는 형태가 있었던 바, 신라에도 가발[다리]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다리는 「삼국사기」新羅本記에 “사신이 果下馬 한 필과 우황·인삼·美髮·금·은 등을 당에 가지고 갔다.”¹³⁾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 질이 매우 우수했던 것 같다. 이처럼 신라의 다리가 당의 진상품 속에 들어 있는 보기는, 이 밖에도 같은 책 聖德王 29년과 33년 景文王 9년조 등에서도 각각 볼 수 있다.

한편 신라부인들의 머리모양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또 당의 진상품이기도 했던 다리는, 대부분 남성들의 머리털을 잘라 만든 것임을 「新唐書」의 기록은 보여 주고 있다. 곧 “신라의 부인들은 화



장이나 눈썹 그리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美髮을 머리에 두르고 구슬과 채색비단으로 꾸미었다. 남자는 머리를 잘라 팔고 黑巾을 썼다.”¹⁴⁾고 했으니 남자의 머리털을 잘라 팔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여성의 가발에 사용되었다

〔그림 6〕 엷은머리(고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의 화려한 장식빛은 가발을 드리워 빚었던 당시 여인의 修髮 풍속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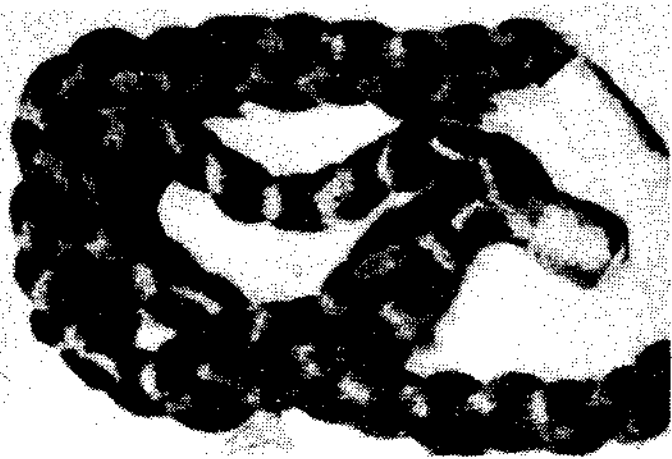
고려의 修髮은 왕조 건립 초기에는, 前時代인 신라의 풍속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그러나 고종 18년(1231) 몽고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한 채, 원과의 치욕적인 和親이 성립된 후에는 그들의 同化政策에 따라 원의 修髮 풍속을 많이 따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충렬왕 원년 12월에는 몽고 특유의 修髮 형태인 開剃辮髮을 따르자는 논의가 있었고¹⁵⁾ 같은 왕 4년 2월에는 정식으로 開剃辮髮할 것을 명하였다¹⁶⁾ 그 뒤 이 開剃辮髮은 일반 서민들보다 출세를 희구하는 관료들 사이에서 크게 풍속을 이루다가 元의 힘이 약해진 31대 恭愍王에 이르러서야 사라졌다. 元의 修髮 풍속은 비단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修髮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니, 당시 禮裝에 쓰이던 簇頭里와 新婦의 服飾에 쓰였던 도투락땡기가 그것이다. 최남선의 「故事通」에 따르면 족두리는 몽고에서 기혼녀가 외출할 때 쓰는 일종의 帽子이며, 도투락땡기 역시 기혼녀의 首飾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방한구인 조바위·풍차·털빙거지 등 여러 복식의 부속품들이 몽고 복식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¹⁷⁾

그러나 이상 살펴본 원의 영향은 어디까지나 궁중을 중심으로 한 특수층에서 이루어졌던 것일 뿐, 일반 서민들에까지 크게 파급된 것은 아니었다. 「고려도경」에 따르면 일반 서민 남자의 修髮 형태는, “미혼인 경우 검은 노끈으로 머리를 묶고 그 나머지는 아래로 늘어뜨린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 책 小親侍條에 “장가들지 않은 者는 다 巾으로 머리를 싸고 내려뜨리다가 장가든 뒤에 束髮한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巾으로 머리를 싸는 풍속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기록에 따르면 결혼 후에는 束髮을 한다고 했는데, 이 束髮이란 전 시대부터 내려오던 일종의 상투라고 생각된다.

11) 東京雜記, 「好北髮 羅時以國都北方虛缺 好結髮於腦後 固名北髮 至合猶然」
 12) 隋書, 東夷傳, 新羅項. 「婦人辨髮繞頭 以雜綵 及珠爲」
 13) 三國史記, 卷九, 新羅本記, 聖德王 22年 春三月條. 「遣使入唐 獻果下馬一匹牛黃·人蔘·美髮·金·銀」
 14) 新唐書, 卷二十, 列傳, 第一四五. 「不粉黛 率美髮以線着 以珠綵飾之 男子剪髮鬻昌以黑巾」.
 15) 高麗史 樂志, 第二十八, 忠烈王 參照.
 16) 高麗史 樂志, 第二十六, 與服 參照.
 17) 李德懋, 靑莊館全書, 양염기, 國譯IX. pp. 90 - 91.

한편 서민 婦女의 修髮 형태는 「高麗圖經」에 “부인의 상투는 귀천이 동일하게 오른쪽 어깨에 늘이고 나머지는 늘어뜨려 붉은 비단으로 묶고, 귀한 사람은 작은 비녀를 꽂는다.”고 했다. 또 같은 책 22권 雜俗에 부인이 髻髻(느린 상투)를 아래로 드리운 것은 마치 상제가 북상투를 짠 모양과 흡사하다.”¹⁸⁾ 고 했으며, 「宋史」고려전에도 “부인의 髻髻[귀밑머리상투]는 오른쪽 어깨에 늘어지고 나머지 머리털은 아래로 늘어뜨려 붉은 비단으로 매고 비녀를 끼고 땡기로 거둬 돌려 내려오는 것을 이겨내게 했다¹⁹⁾고 했다. 이상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고려 부녀의 修髮 모습은 上代의 엇은머리와 비슷한 형태이나 귀밑머리를 실타래처럼 틀어 오른쪽 어깨에 드리움으로써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고려 여성의 머리모양이 엇은머리였다는 사실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河回假面의 각시像에서도 엿볼 수 있다.[그림 7]

미혼녀의 경우는 미혼남자의 修髮 형태와 동일했고, 다만 남자는 검은 노끈 대신 붉은 비단으로 머리를 묶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고려도경」 貴女條에는 “아직 시집가지 않을 경우 열 살 남짓한 여자였는데도 被髮하지 않았다.”²⁰⁾고 한 기록이 보이는 바, 일부 귀족층에서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틀어 올려 어른스럽게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머리를 붉은 비단으로 묶어준 후 그 나머지를 아래로 늘어뜨리는 것이 상례였다. 남·여의 이러한 修髮 형태는 元의 開剃辨髮 풍속이 침투해 오면서 예전에도 약



[그림 7] 궁중용가체

간 그 형태를 보였던 땡는 풍속이 다시 부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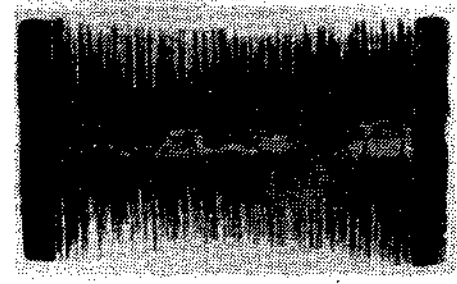
기에 이르렀다²¹⁾

고려가 元의 풍속을 따르기 이전까지 前시대인 신라의 修髮 형태를 그대로 따랐듯이, 조선조 역시 처음에는 고려의 풍속을 이어받아 부녀의 대표적인 머리 형태는 엇은머리였다. 다만 고려의 부녀들이 귀밑머리를 틀어 오른쪽 어깨에 늘임으로써 美意識을 충족시켰던 반면, 조선에서는 엇은머리에 다리를 드리워 머리를 크고 높게 할수록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成宗代에 이르러서는 高髻의 높이가 1尺이나 되었고,²²⁾ 이러한 경향은 연산시대를 지나 뒤이어 밀어닥친 병란(인조 14년, 1437)·임란(선조 25년, 1592)을 겪으면서 더욱 뿌리깊게 번져갔다.

그런데 이 高髻 풍속은 거기에 필요한 큰다리 하나의 값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密花·石黃·金·錦·진주 등으로 장식을 하였으므로 그 사치성이 대단했다. 따라서 자연 사회적인 병폐를 유발했으니, 다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혼인을 수 년씩 늦추는가 하면, 머느리를 보았어도 髻髻를 할 수 없어 혼인한 지 6·7년이 되도록 폐백의 禮를 행하지 못하는 悖倫에 이르기도 했다.²³⁾[그림 8]·[그림 9]



[그림 8] 서민용 月子 (조선시대)



[그림 9] 참빗 (조선시대)

이에 영조는 이러한 加髻의 사회적인 폐단을 막고자 즉위 31년(1727)에 嘉禮 때 소용되는 髻髻를 50束에서 20束으로 줄이라고 명했고, 25년(1750)에는 군신들과 더불어 부녀의 머리 형태를 논의했으며, 32년(1757)에는 “士族婦女의 엇은머리를 禁하고 속칭 족두리로 이에 대신케 한다.”²⁴⁾는 법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령은그로

18)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第二十卷, 「女人民庶之家 女子未嫁」, 第二十一卷, 小親侍 婦人賤使條, 第二十二卷, 雜俗一.

19) 宋史, 卷四八七, 「婦人 髻髮垂右肩 餘髮被下 約以絳羅貫之替 族裙重疊以多馬勝」

20)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第二十卷, 貴女, 「十餘歲當是未嫁之人 亦不被髮」

21)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敎文社, 1982. p. 166 參照.

22) 朝鮮王朝實錄, 成宗 十三年 六月.

23) 朝鮮王朝實錄, 英祖 三年 八月 乙酉.

24) 朝鮮王朝實錄, 英祖 三十二年 一月 十六日.

부터 8년 후인 영조 33년 11월에 다시 엷은머리로 하라는 영과 함께 폐쇄되고 말았다. 당시에 족두리 제도가 폐쇄된 것은 족두리가 몽고의 풍속인데다 족두리에 각종 보화를 장식함으로써 다리와 맞먹는 사치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녀의 修髮형태는 영조의 다음 대인 正祖代에 재차 거론되어 正祖 12년(1788) 10월 3일에 髻髮禁止令을 복구시킨다는 傳敎와 함께 8개 항에 달하는 加髻申禁節目을 작성 발표하기에 이르렀다.²⁵⁾ 加髻申禁節目의 요지는, 다리는 물론 本髮로 머리를 엷는 것조차 일체 금하여 대신 족두리를 하라는 것과 머리에 쓰는 것은 족두리로 하되 金·銀·眞珠의 장식을 일체 금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正祖가 장장 8개 항에 달하는 금지조항을 작성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婦女髮制改革을 단행하였지만, 족두리가 완전 실시를 본 것은 그 후로도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순조 중엽이었다.²⁶⁾ 그러나 엷은 머리 형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관북지방에서는 개화기까지도 엷은 머리 풍속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한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부녀의 修髮 형태와는 달리, 기혼 남성의 경우는 上代로부터의 상투 머리형이 조선조에도 계속 이어졌다. 또한 미혼 남·여의 머리 형태는 일반적인 것이 머리를 땅아서 뒤로 길게 늘인 것이었다. 이러한 辮髮 외에도 “쌍상투와 絲陽髻는 미혼 전에만 쓰는 것이고……”²⁷⁾라고 한 「正祖實錄」의 기록이나 “미혼 남·여는 머리털을 둘로 나누어 쌍상투를 짚으니……”²⁸⁾라고 한 「거가잡복고」의 기록으로 미루어 쌍상투의 머리와 사양머리가 공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모발이 미처 자라지 못한 어린 소녀의 머리털을 6등분 내지 8등분하여 땅아 주는 바둑관머리[жат머리라고도 함]도 있었다.

1. 修髮의 風俗

조선조에 있어서 머리털은 그것이 부모님한테

받은 것인만큼 절대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강했다. 따라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元日燒髮’이라 하여 빠진 머리털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빗집 속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다가 1년치를 한꺼번에 태워버리는 풍속까지 생겼었다.²⁹⁾ 이처럼 머리털 자체를 소중히 여겼던 조선인들이었던만큼, 修髮에 대한 관심도 대단하여 그 방법이 매우 다양했고, 修髮과 관련됐던 도구 또한 크게 발달되어 있었다.

이제 修髮의 풍속을 論함에 있어 修髮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모발관리와 修髮에 관련됐던 도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毛髮管理

조선인들이 원했던 모발의 형태는 술이 많고 색이 검으며, 윤기가 나면서 그 길이가 긴 것이었다. 그러므로 모발관리도 그들이 원했던 모발의 형태를 유지하며 그것에 근접해 가는데 있었음은 물론이다. 우선 『규합총서』에 따르면 ‘黑髮長潤法’이라 하여 “기름 두 되에 무르익은 오디 한 되를 병에 함께 넣어 벌이 안 쪼는 침하에 담아 두었다가 석 달만에 바르면 검게 칠한 듯하고, 푸른 깻잎과 호도 푸른 껍질을 한데 달여 머리를 감으면 길고 검어진다”³⁰⁾고 했다. 여기에 오디란 뽕나무 열매를 말하는데 이것이 기름과 혼합되어 일으키는 화학작용으로 머리털을 검게 물들어 주었던 것이다. 또한 깻잎과 오디잎은 그 자체에 많은 지방분을 함유하고 있는만큼 이것이 머리의 윤기를 더해 주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는 일이다. 조선시대의 이러한 풍속은 참깨를 계속해서 먹으면 머리털이 난다는 오늘날의 풍속과도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이리라.

한편 「山林經濟」에는 대머리에 머리털을 나게 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천궁·액리·산호 각 한 냥, 만평차·영능·향부자 각 닷 돈을 명주로 만든 자루에다 넣어서 부순 후, 이것을 청량유에다 21일 동안 담구었다가 기름을 내서 하루에 3번씩 머리가 나지 않은 부위에다

25) 朝鮮王朝實錄, 正祖 十二年 十月 三日條 參照.

2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十五, 東國婦女首飾辨證說. 「純祖中葉後通國婦女盡廢辮髻加首 只辮已髮橫結 腦後 插小笄以成俗」

27) 朝鮮王朝實錄, 正祖 十二年 十月 三日.

28) 朴珪壽, 居家雜服攷, 卷三, 幼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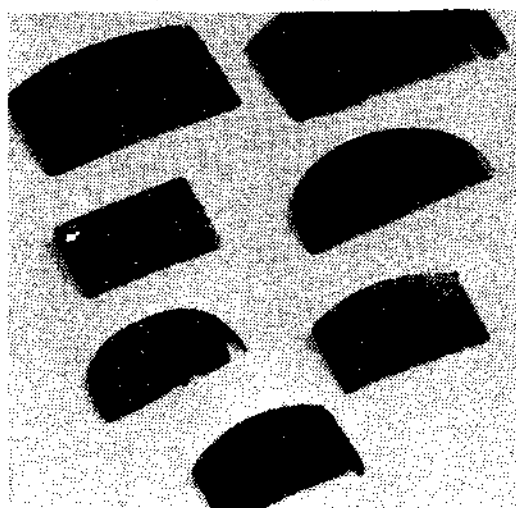
29) 李德懋, 青莊館全書 四十八, 耳目口心書 I 參照.

30) 憑虛閣李氏, 閨閣叢書, 鄭良婉譯, 보진재, p. 387.

문지르면 머리털이 난다.”³¹⁾는 것이다. 또 “술에다 담근 천초 양제를 머리 빠진 부위에 문질러도 머리털이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청장관전서」에도 중 晉明이 風病에 걸려서 異人의 말대로 長松明을 복용하였더니, 열흘이 못되어서 머리털이 다시 나고 얼굴 모양도 예전같이 되었다는 모발소생의 기록이 있다. 이밖에 민간에서 행해졌던 모발관리 법으로는 머리털에 윤기가 나고 또 빠지지 않게 한다고 하여 단오와 유두에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는 풍속이 널리 행해졌다. 또 머리가 용처럼 길어진다고 하여 정월 첫 용날 上辰日에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었다.³²⁾ 또한 제주에서는 까마귀 알을 까서 그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털이 검어진다고 하여 그러한 풍속이 널리 성행되기도 했다. 제주의 이러한 풍속은 오늘날에도 모발보호에 계란이 이용되고 있는만큼, 과학적으로 매우 근거가 오랜 모발관리의 풍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조선시대의 모발관리 풍속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차치하고라도 모발에 대한 조선시대인들의 애착심과 오랜 경험이 빚어낸 풍속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2) 修髮道具

修髮과 관련된 도구 중 가장 애용되고 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빗이었다. 이 빗의 종류는 빗살이 성근 열레빗과 빗살이 가느다랗고 촘촘한 참빗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열레빗의 크기는



[그림 10] 열레빗(조선시대)



[그림 11] 비치개 (조선시대)

작은 것이 두 치 정도였으며 주로 쇠뿔·상아·산유목 등으로 만들어졌다. 쇠뿔이나 산유목으로

만든 것은 제주산이 가장 상품이였으며, 상아로 만든 것은 특히 흐트러진 모발 정리에 적합했다. 참빗은 그 크기 면에서 열레빗보다 훨씬 작았으나, 작은 참빗의 크기는 열레빗의 반절인 한 치 정도였다. 이것은 수발에 사용하는 외에, 빗살이 촘촘하여 서캐를 훑어 내는데 이용되기도 했다. 참빗의 재료는 주로 참대였는데 특히 전라도 영암의 참대가 가장 아름답고 또 질도 좋았다. [그림 10]·[그림 11]

참빗의 등마루에는 烙畫를 그려 넣어 장식으로 삼았다. 이것은 인두 같은 것으로 태워서 그린 그림이다. 또한 참빗 중에는 華角으로 붙여서 장식한 華角 참빗이 있었는데 이것은 서민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었다. 또한 「女容國平亂記」에 보면 “前將軍 梳快 열레빗과 後將軍 梳眞 참빗”이라 적혀 있어 열레빗과 참빗의 중요성을 풍자해 주고 있다.³³⁾ 또한 우리의 속담에 “열레빗 참빗 품에 품고 가도 제 복 있으면 잘 산다.”고 했는데 이 말은 결국 빗은 여인의 무기요, 생명이며, 생활의 밑천처럼 중요함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조선조에 사용되었던 빗의 종류를 살펴보면, 열레빗[月梳]·참빗·면빗[살짝머리를 걸어 빗는 작은 빗]·陰陽梳 등이 있었다. 참빗에도 大梳·中梳[소뿔로 만든 것]·木中梳·竹中梳·어중소·밀소(가장 작은 빗)·되맥이 빗³⁴⁾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 참빗을 사용하는 풍속은 매우 특이하였다. 우선 참대기름으로 참빗살을 닦은 후 기름을 발라서 그 사이가 투명해진 다음에 빗질을 시작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러한 풍속은 참빗의 빗살이 가느다랗고 촘촘한 만큼, 빗살이 부러지는 것을 막고 또 기름기로 하여 머리털이 잘 빗겨 내려가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부녀의 머리털을 정리하는 데는 앞에 말한 두 종류의 빗 외에도, 길고 짧은 머리털을 잡아 당겨다 위로 끌어 올리는데 사용되었던 솔빗[刷子]이라는 것이 있었다. 또한 남성의 수발과 관련한 도구로 斂髮簽[살짝밀이]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31) 增正懸吐, 山林經濟 下編, 格物抄, 京城 滙東書館藏版. p. 316.

32) 李德懋, 靑莊館全書, 五十二卷.

33) 崔勝範, 女容國平亂記小攷, 池憲英華甲紀念論叢, p. 420.

34) 장 인순(충남 공주군 유구면 만천리)씨의 證言, “길이 든 헌 참빗에서 살을 골라 다시 맨 빗으로 귀하고 값이 비싸다.”

형태는 얇은 구두주걱 같이 생겼는데, 머리를 다 빗고 망건과 관까지 다 갖춘 후에 짧은 머리가 망건 밖으로 나왔을 경우 이것으로 눌러서 머리를 망건 속으로 집어 넣는 일종의 응급조치용 수발 도구였다. 이 살짜밀이는 대모나 고래수염으로 만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쳤다.

한편 얼레빗이나 참빗은 그 살이 매우 촘촘하였으므로 빗에 묻은 머리때를 제거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참빗에 낀 때를 제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빗솔(梳帚)이다. 이 빗솔의 형태는 머리 부분은 말총으로 만든 후 색칠을 하거나 무늬를 넣었으며, 자루 부분은 뽕이나 나무로 가느다랗고 길쭉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조선인들은 빗살의 때를 제거함에 있어 빗솔로 그것을 긁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篋桃齒³⁵⁾라는 것을 이용하여 빗살을 꿰어냈다. 이처럼 빗살을 꿰어내는 풍속은 참빗살에 묻어나온 서캐와 기름 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위생처리 법이기도 했다[그림 12]

끝으로 修髮에 직접 사용되었던 도구는 아니었지만, 남·여의 흰 머리털을 뽑아내는데 사용되었던 족집게(鑷子)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전라도에서 만든 것이 가장 유명하였는데, 이곳에서는 넓은 배에 박혀 있는 녹슨 못을 불에 달군 후 쇠가 한층 부드럽고 연해졌을 때 이것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족집게의 쇠족이 살을 검게 만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 살펴본 수발도구는 대개 상류층에서는 梳匣이라는 곳에 보관해 두었고 서민층에서는 빗집이라는 곳에 넣어 두었다. 梳匣에는 남성용과 여성용의 두 종류가 있었다. 남성용 梳匣의 형태는 큼직한 상자처럼 생겼는데 위에 서랍문이 달려 있어 그것으로 여닫게 되어 있었다. 梳匣 속에는 얼레빗 1개, 참빗 2개, 빗솔 1개, 비도치 1개, 빠진 머리를 모아두는 油紙로 된 주머니 1개 등이 들어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여성용 梳匣은 남성용보다 훨씬 커 한 치 정도나 되었다. 내부 구조는 두 층으로 되어 있는데 윗칸은 다시 중앙에

서 칸막이가 되어 있었다. 이곳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물을 보면 위칸 왼쪽에는 얼레빗·참빗·빗솔·비도치 등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빠진 머리를 담아두는 주머니가 보관되어 있었다. 또한 아래칸에는 화장에 쓰이는 粉·세안용 팔가루·이 닦는데 쓰이는 소금, 머리기름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이 梳匣은 오동나무로 만든 후 여기에 자개·대모 등을 장식함으로써 당시 修髮 풍속만큼이나 발달해 중국에 수출되기도 했다.³⁶⁾

빗집은 경제상 값비싼 梳匣을 마련할 수 없는 서민들이 梳匣 대용품으로 고안해 낸 것이다. 이 빗집은 창호지를 여러 겹 붙여 기름에 절여서 만든 것인데, 서민들은 머리를 빗을 때마다 이것을 펼쳐 놓고 빗었다. 그런데 빗집은 종이로 만든 정리 주머니인만큼, 보관할 또 다른 기구를 필요로 했다. 그리하여 당시 서민들은 빗집고비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했다. 빗집고비는 가는 나무 오리를 직사각형으로 짜서 앞 뒤에 종이를 바르되 앞에 다시 두꺼운 종이를 틈이 뜨게 붙였는데 그 틈에 빗집을 꽂게 되어 있었다.³⁷⁾

3) 修髮形態

조선시대의 修髮 풍속은 초·중기를 지나 순조중엽(1820년)에 이르기까지 부녀자의 머리 모양은 엷은머리가 대중을 이루고 있었다.[그림 12] 그리고 이러한 부녀자의 엷은머리 풍속은, 그 근



[그림 12]
상투와 엷은머리
(조선시대)

본 모양새에 있어서 변함이 없었고, 다만 장식에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곧 숙종 때 李瀾(1681~1763)이 저술한 「성호사설」에는 “次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발인데 길고 짧은 머리를 차례대로 만든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머리칼을 서로 이어 길게 만들어서 머리에다 빙빙 돌려 髮髻가 되게 하는 것이다.”³⁸⁾고 하였는 바,

35) ‘비도치’는 머리쪽은 둥그렇고 자루쪽은 뾰족한 쇠처럼 생겨 빗살수시개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머리의 가리마를 타는데 쓰여지기도 했다. 일명 비치개 또는 가리매라고도 하였음.

36) 빗의 種類 및 梳匣은 ‘林園十六志’ 第二卷, 瞻用志, pp. 540~541을 主로 參照하였음.

37) 李熙昇, 國語大辭典, 민중서관, p. 1689.

38) 李瀾, 星湖僊說, 第六卷, 萬物門, 髻粧, 國譯Ⅲ. p. 418.

조선 초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엷은머리는 가발의 일종인 髻에 기본을 둔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유행했던 각양 각색의 髻의 종류에서도 입증된다. 여기서 그 종류를 들어보면, 길이를 높게 만든 鳳髻, 걸을 때 흔들리게 만든 雲髻·迎春·垂雲, 漢의 西王母로부터 비롯되었다는 分髻·同心 등이다.³⁹⁾[그림 13]

그러나 영조 때의 실학자 李德懋(1741~1793)가 저술한 「청장관전서」에는 “七·八만 냥을 비축하여 軍馬가 많은 旗幟와 치장에 늘리어 쓰러지



[그림 13] 대수(조선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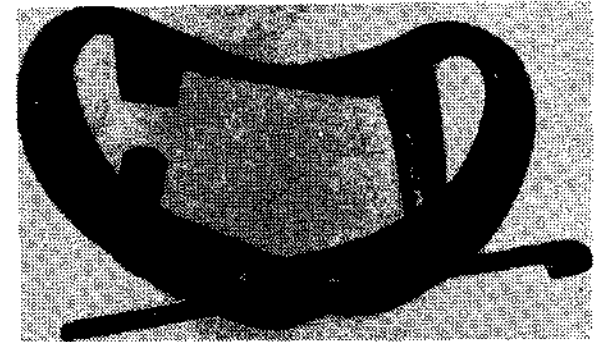
는 격으로 요란스럽게 머리를 꾸미고, 웅왕불이·범랑비녀·진주달린 비단 끈 따위로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할 만큼 머리를 꾸며도 家長된 이로서는 금할 수 없었다.”⁴⁰⁾고 한 바, 조선 중엽 이후 英·正祖의 髮制改革이 단행되기 전까지는 머

리를 크고 높게 한 위에, 또 다시 각종 보화를 장식하여 한층 호화롭게 장식한 엷은머리가 풍속을 어지럽혔음을 알 수 있다. 「秋官志」(1781)에 따르면 이때 엷은머리에 드는 비용은 中人十家の 생산보다 더 많다고 했으니 그 사치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당시의 사치한 엷은머리 풍속은 그 뿌리가 깊어짐에 따라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혼례를 앞둔 서민들이, 신부의 화려한 머리 장식을 위해 밭과 집을 팔음으로써 가산을 탕진하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그나마 팔 것이 없어 신부의 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할 수 없을 때는, 혼례를 몇 년씩 미루어 혼기를 놓치는 경우까지 있었다. 엷은머리의 사치한 풍속이 빛은 폐단은 부유한 집안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니, 「청장관전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요즘 한 부자집 며느리가 나이 13세에 다리를 얼마나 무겁게 하였던지,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서자 갑자기 일어서다 다리에 눌러 목뼈가 부러졌다.”⁴²⁾

이처럼 사치의 극을 이루었던 엷은머리의 풍속은 婦女의 髮制改革이 단행된 英·正祖 이후에 크게 줄어 本髮로만 엷은머리를 하거나 나무로 큰



머리 형태를 만든 [그림 14] 띠구지(조선시대) 띠구지를 다리 대신 사용하기도 했다. 띠구지는 그 길이가 38.5cm에서 42cm정도였으며, 폭은 20cm에서 23.5cm정도였는데, 나무전체를 黑漆하고 마치 머리를 땀은 것처럼 보이도록 陰刻이 되어 있었다. 이 띠구지는 처음에는 궁중에서만 사용하였으나 후에는 班家の 부녀자들이 사용했고 高宗代에 와서 ‘머리틀’이라 하였다.[그림 14]

엷은머리의 뒤를 이어 조선조 부녀자들의 修髮 풍속을 이끌어간 것은 쪽머리였다. 쪽머리 형태는 “순조 중엽에 와서 엷는 가발 대신에 자기머리를 감아 올려서 머리 뒤통수에다 엷은 후, 조그만 비너를 꽂았다.”⁴³⁾는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기록에서 그 모양새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쪽머리 제도가 正祖의 가발금지령에 따라 풍속화된 뒤에도 긴 다리사치가 역시 유행하고 있었음을 「居家雜服攷」의 기록은 보여 주고 있다.

“금세 우인들은 땀은 머리채를 머리 뒤에 붙이고서 그것을 娘子頭라 한다. 娘子頭란 다리를 엷는데 있어서 높고 크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조금 작게 만든 다리로 대신하여 뒤에 땀아 붙인 것을 말한다. 娘子頭가 조금 작은 다리라 할지라도 근래에 와서 또 점점 커지고 길어져서 오히려 사치한 것을 다투게 되어, 옛날에는 머리에 엷던 것을 지금엔 목과 어깨 사이에까지 메고 지게 되었다.”⁴⁴⁾

39) 李瀾, 星湖僊說, 第六卷, 萬物門, 髻粧, 國譯Ⅱ. p. 385.

40)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三十, 士小節 第六, 婦儀一 服飾.

41) 朴一源, 秋官志, 第四編, 掌禁部, 申章 奢侈. 「一髻之費過于漢文 所謂 申人十家之産」

42)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三十, 士小節 第六, 婦儀一 服飾.

4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十五, 東國婦女首飾辨證說.

44) 朴珪壽, 居家雜服攷, 卷二, 內服, 朴珪壽全集 下, p. 1402.

위의 기록에 따르면 미혼 남·여의 땡은머리처럼 긴 형태의 다리를 이용해 쪽을 크게 만드는 것이 조선조 말엽의 새로운 유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娘子頭가 다른 형태의 加髮이고 보면, 전 시대와 같은 사회적 폐단을 다시 물고 왔음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조 말엽의 실학자 朴珪壽(1807 ~ 1876)는 당시의 娘子頭 폐습을 다음과같이 한탄하고 있다. [그림 15]·[그림 16]



[그림 15] 쪽머리(조선후기)
온양 민속박물관



[그림 16] 땡은 머리(조선시대)
온양 민속박물관

“萬金의 집에서千金을 들여 한 부인의 머리 장식을 만들고,千金의 집에서는百金을 들여 한 부인의 머리 장식을 만들 때, 여자의 양육비는 어디서 나오겠는가……(中略)……다투어 긴 다리를 본받아 보니 그 추세가 사치한 데까지 나아가고 산간·벽지에 사는 사람들의 풍속까지도 이렇하니 그 폐단이 가장 큰 것이다.”⁴⁵⁾

가발을 이용한 쪽머리 풍속이 산간·벽지에까지 번지자 경제적으로 이를 도저히 준비할 수 없었던 집안에서는 나무를 깎아 옷칠을 하거나 종이로 만든 것을 그 代用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⁴⁶⁾



쪽머리는 이처럼 娘子頭에 의한 형태상의 변화뿐 아니라, 그 위치에도 변동이 있었다. 곧 초

기는 쪽이 머리 뒤통수에 달려 있다가 나중에는 저고리 위로 내려왔다. 그러나 쪽의 위치가 저고리 위에 있게 되자, 동정이 빨리 더러워지는 등 생활의 불편을 느끼게 되자 다시 뒤통수로 올라갔다.⁴⁷⁾[그림 17]

한편 조선조 전 시대를 통해 부녀자의 修髮 풍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가발은 대부분 죄수의 머리털을 잘라 만들거나, 북쪽지방 남자들의 머리털을 잘라 만든 것이었다. 특히 북쪽지방 남자들은 자신의 머리털을 호구지책으로 삼아, 머리털이 빨리 자라도록 쌀뜨물에 머리를 감는 풍속이 성행하기도 했다.

조선조 부녀자의 修髮 풍속은 지금까지 살펴본 엷은머리와 쪽머리 밖에도, ‘唐髻’와 우암 宋時烈(1607 ~ 1689)이 유행시켰다는 ‘屈宮人髻制’가 있었다. 唐髻는 “이마 앞에서 위까지 머리털을 둘로 나누어 이마 가운데에 거두어 올리고, 이때 빠져 나왔던 조그만 머리털도 함께 묶어서 쪽을 짓는 것이었다.” 또한 屈宮人髻制는 머리 위 정 가운데에서 한 움큼을 도두라지게 하고, 그 나머지 머리털을 빗어 모아 목 뒤에서 움켜쥐고, 다시 나머지를 거두어 위로 추켜 묶고, 또 나머지를 모두어 꼭대기까지 끌어다, 맨 먼저 모아 올린 한 움큼의 머리털과 합쳐서 붙들어 매고 비틀어서 머리꼭대기에 상투를 트는 것이다. 이 머리털은 중국의 屈氏라는 여인이 亂을 피하여 조선에 왔을 때 우암 선생이 그 머리털을 본떠서 유행시켰다는 풍속이다.⁴⁸⁾

미혼녀의 修髮 풍속은 뒤로 땡아 늘인 머리 [辮髮]가 일반적인 풍속이었으며, 그밖에 사양머리·쌍상투머리 등이 있었다. 이 중 땡은머리는 미혼 남성들의 修髮 풍속이기도 했으므로, 이들과의 구분을 위해 미혼녀의 땡은머리를 특히 땡기머리라고 불렀다. 이때의 땡기머리 형태는 땡기를 같이 넣어서 땡은 것이 아니라, 먼저 머리를 땡은 후 그 끝에다 땡기를 목 뒤쪽 위로부터 밑으로 매달아 놓은 것이다. 따라서 땡기는 간혹 머리로부터 빠져나가기도 했으니, 다음의 민요는 당시의 이러한 광경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45) 朴珪壽, 居家雜服攷, 卷二, 內服, 朴珪壽全集 下, p. 1396.
46) 徐有集, 林園十六志, 簇頭里條 參照.
47) 李能和, 朝鮮女俗考.
48) 朴珪壽, 居家雜服攷, 卷二, 朴珪壽全集 下, p. 1485.

“……형님 땡기 朱紗땡기 이 내 땡기 芳紗땡기 / 형님 땡기 석 자 세 치 / 이 내 땡기 두 자 두 치 / 동안 뜰에 널 뛰다가 동안 뜰에 빠졌도다 / 주웠도다, 주웠도다.”⁴⁹⁾

미혼녀의 이러한 修髮 형태는 혼인 전날 관례식에서 笄, 곧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음으로써 부녀의 머리 형태로 변하게 된다. 이때 신부의 머리를 엮어주는 이의 손을 福手라고 하였는데, 신부의 친구나 친척 중에서 심중을 기하여 선택하는 것이 당시의 풍속이었다. 만일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는 얼마간 돈을 주고 首母를 초청했다. 「거가잡복고」에 따르면 首母란 머리와 얼굴에 치장을 잘 하는 사람 또는 首飾과 의복을 남에게 세내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사양머리는 班家 규수가 새해 문안으로 입결할 때, 혹은 궁중 아가內人이 하던 修髮 형태로 일반 서인녀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던 풍속이다. 사양머리의 형태는 머리를 두 갈래로 나누어서 땡은 후 이것을 다시 17~18cm 길이로 구부러 가지런하게 묶고 중간을 땡기로 맨 후 金·銀·珊瑚·翡翠·雄黃 등으로 장식한 것이다.

쌍상투는 이미 고구려의 벽화에서 그 형태를 볼 수 있듯이 삼국시대부터 풍속화되어 온 남·여 공통의 수발형이었다. 이 중 남자의 쌍상투는 總角이라 하여 미혼 남자의 상징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그 모양새는 머리의 좌·우 頂邊 가 사이에 두 개의 상투를 튼 것인데, 여자의 경우는 목 뒤에 작은 상투가 하나 더 있다. 박 규수는 여자의 이 작은 상투에 대해 “여자에게 작은 상투가 목 뒤에 있는 것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禮法에 十字로 가르는 제도가 있어, 계례 때 쌍상투를 합쳐서 한 상투를 만들더라도 목 뒤의 작은 상투는 그대로 두어 얼굴 단장으로 삼고, 깃발이 나부끼는 것 같이 꾸몄다.”고 했다.⁵⁰⁾

그런데 정수리에 있던 미혼녀의 쌍상투는 점점 아래쪽에 내려와 1840년경에는 귀밑 옆으로까지 내려와 있었다. 쌍상투의 이러한 위치 이동은, 아름다움을 추구한 조선조 말엽의 유행 심리가 빚

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투가 정수리에 있으면 물건을 이고 다니기에 불편했기 때문에, 실생활의 편리를 위해 점점 아래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발 풍속은 지방에 따라 다르기도 하였으니, 관북지방 미혼녀의 풍속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곧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따르면 비록 처녀라 할지라도 나이 16·17세가 되면 다래를 잇대어 많은 머리를 둘러서 쪽을 올림으로써, 기혼녀의 머리 형태처럼 하는 것이 그곳의 풍속이었다. 그러나 “양쪽 귓가에 말아서 두른 머리털만은 풀지 않고 다리를 넣어 땡아 올린 쪽 밑에까지 연결시켜 두었다가, 혼례를 치루게 되었을 때 비로소 풀어버리게 되는데 관북지방에서는 이것을 古禮로 여기고 있었다.”⁵¹⁾고 한다.

이상 살펴본 조선조 여성의 修髮 형태는 빗질에 앞서 동백기름이나 들기름을 머리에 흠뻑 발라, 일단 머리털이 마른 후 빗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속이었다. 그 이유는 모발에 윤기를 주고 修髮의 형태를 오래도록 지속시켜 줄 뿐만 아니라 빗질을 할 때 비듬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조 기혼 남성의 修髮 형태는 상투머리가 풍속의 대중을 이루고 있었다. 이 상투머리는 이미 上代부터 있어온 풍속으로, 시대에 따라 상투를 튼는 법이라든가 장식에 변화가 있기는 했어도 그 근본적인 형태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여기서 「거가잡복고」의 기록을 중심으로 상투트는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례식 이전에 땡았던 머리를 일단 풀어 정수리 부분의 머리털을 가마를 중심으로 깎아냈다. 그런 다음 남은 머리를 모두 위쪽으로 끌어 올려 깎아낸 자리 위에다 머리털의 뿌리를 묶어준다. 묶은 머리털은 잘 비틀어 감아 버섯대거리처럼 만든 뒤, 작은 매듭으로 돌돌 감아주었다. 이때 머리털 끝은 모두 상투 뿌리에 감추어지게끔 신경을 써야 했으며 상투의 폭은 좁은 편이 편하다. 상투를

49) 方鍾鉉, 朝鮮民謠集, 경북 의성 지방의 땡기민요.

50) 朴珪壽, 居家雜服攷, 卷二, 內服, 朴珪壽全集 上, p. 1482.

51)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三十四, 關北室女上髮證說. 「嫁女上頭而基左右耳后兩辨髮 則儀舊石鮮繞入加髦下迎婚後始鮮之其俗後……」

튼 후에는 상투뿌리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동곳을 가로질러 꿰고 또 땡기로 상투를 싸매 주었다. 상투를 싸매고 남은 땡기는 뒤로 느려서 장식을 하였는데, 당시 풍속에 ‘總이 길다.’는 말은 바로 이 땡기가 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⁵²⁾ 한편 동곳의 형태는 머리부분은 일률적으로 半球形이었고, 밑부분은 조금 굽은 것, 굽지 않은 것, 말뚝형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러한 동곳은 금·은·옥·밀잠 등의 귀금속으로 만들어 짐으로써 조선조 남성 사치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미혼 남성의 대표적 修髮 형태는 앞서 미혼녀의 修髮 형태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뒤로 땡아 늘인 머리와 쌍상투였다. 이 땡은머리와 쌍상투는 관례를 치르게 되면 땡은 머리는 상투로, 쌍상투는 하나의 상투로 합치는 것이 그때의 풍속이었다. 그런데 관례식에서의 상투는 아버지가 아들의 상투를 들어주는 것이 풍속이었다.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때는 친척이나 친구, 또는 스승이나 덕망이 높은 사람이 대행하기도 했다.

한편 미혼녀와 마찬가지로 관북지방의 미혼 남성들도 성인의 修髮 형태인 쌍상투 머리가 풍속을 이루고 있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육진 지방의 풍속은 시골에 사는 사내아이들도 다 어른처럼 상투를 틀어 올리고 있다. 이는 장가들이기 전에 이미 어른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으로, 괴이한 풍속이 아닐수 없다.”⁵³⁾고 되어 있는 바, 미혼녀의 성인형 修髮 형태와 더불어 지역에 따른 修髮 풍속의 차이를 말해 주는 좋은 보기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머리털이 채 자라지 못한 어린 소년·소녀의 修髮 풍속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조는 일찍부터 修髮 형태로 남·여의 구별을 꾀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자식을 낳은 지 3개월이 되면 황새머리 추(髻)를 만들었는데, 男兒은 角이라 하여 머리털을 양분한 후 이마로부터 뇌에까지 한 가리마를 타서 이러한 修髮形을 만들었고, 女

兒는 羈라 하여 머리털을 넷으로 나누어 이마로부터 뇌에까지 한 가리마를 타고 또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한 가리마를 정수리 위에서 종횡으로 교차되게끔 이것을 만들었다.”⁵⁴⁾ 그런데 女兒의 경우는 5~6세가 되어 머리털이 많이 자라면 황새머리 추를 그만 두고 머리를 6등분 내지 8등분 하여 땡아 주었다. 이러한 修髮 형태를 잣머리 또는 바둑판머리라고 하였다.⁵⁵⁾ 이 머리형에는 女兒로서의 아름다움을 살려주기 위해 금·은박에 산호·비취 등이 장식된 땡기를 달아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10세 내외의 男女兒들의 修髮 풍속으로 머리묶음형이 있었는데, 이것은 덜 자란 머리를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함과 동시에 활동을 편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미혼 남녀의 修髮制度에 대하여 朴珪壽는 그의 「거가잡복고」 幼服編에서 雙介纒總으로 정의하고 있다.

2. 首飾의 風俗

조선조 부녀자의 首飾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髻·다리·娘子 등으로 불리웠던 일련의 가발풍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발에 대해서는 修髮의 풍속에서 이미 다룬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가발을 제외한 조선조의 모든 首飾品 곧, 땡기·떨잠·첩지·비녀·뒤꽂이·화관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비녀〔簪〕

비녀는 首飾品인 동시에 修髮한 머리의 형태를 고정시키는 도구였다. 비녀는 남·여 共用으로, 그 길이에 따라 긴비녀[약 30 - 44 cm]와 짧은 비녀[약 10 cm정도]로 나누어졌다. 이 중 짧은 비녀는 주로 남성들에게, 긴 비녀는 주로 여성들에게 사용되는 것이 일반 풍속이었다. 그것은 여성은 긴 비녀로 남성의 갓에 맞먹는 장식을 하려 했던 것이고, 남성은 갓을 써야 했으므로 긴 비녀가 오히려 방해가 됐기 때문이다.⁵⁶⁾ 또한 남성의 비녀에는 대체로 조각을 하지 않고, 여성의 비녀

52) 상투를 쓰는 순서는 朴珪壽의 居家雜服攷, 卷二, 內服編 參照.

5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二十四, 關出室女上髮辨證說.

54) 朴珪壽, 居家雜服攷, 卷二, 朴珪壽全集 下. p. 1492. 「子生三月分髮爲 男角女羈角者分髮爲兩也 自額至腦開一道也 羈者分髮爲四也 自額至腦既開道自 至右又開一道縱橫交達在於頂上也」

55) 趙孝順, 古代未婚男女의 服裝裝飾攷, 大韓家政學會誌. 1978.

金惠宣, 英·正祖 時代 以後의 女子髮風에 對하여, 史學會誌, 延世大學校 史學研究會, 1964. 3. p. 37.

56) 朴珪壽, 居家雜服攷, 卷二, 朴珪壽全集 下. p. 1456.

에만 여러 가지 형상을 조각하는 것이 또 하나의 비녀 풍속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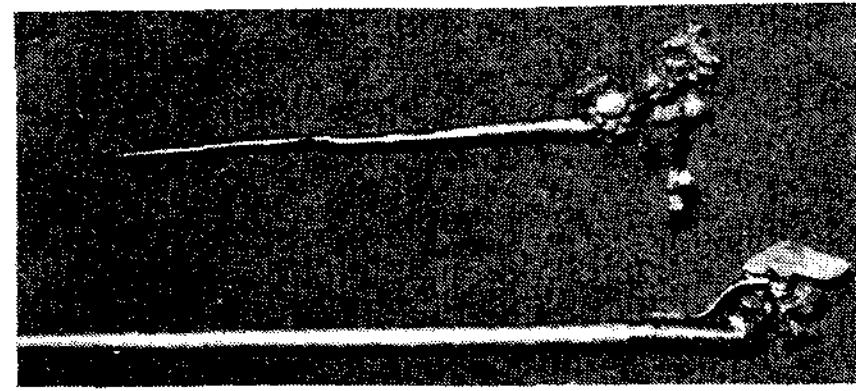
비녀가 이처럼 남·여 共用이기는 했으나 正祖의 婦女髮制改革과 더불어 쪽머리가 일반화되면서 비녀는 거의 여성의 전유물처럼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총각이 처녀에게 비녀를 주면 그것은 바로 請婚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고, 총각으로부터 받은 비녀를 처녀가 분실하면 그것은 총각에 대한 애정 포기로 간주되는 풍속이 생겼다. 또한 비녀는 혼례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사랑의 情表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남성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情表이기에 부인은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관 속에 자신의 비녀를 넣으면서 수절을 다짐하는 풍속도 있었다.

이밖에도 비녀는 많은 상징으로도 통하였으나, 머리가 梅竹形인 것은 정절을 상징했고, 송이버섯 형인 것은 남성기를 상징했다[최 남선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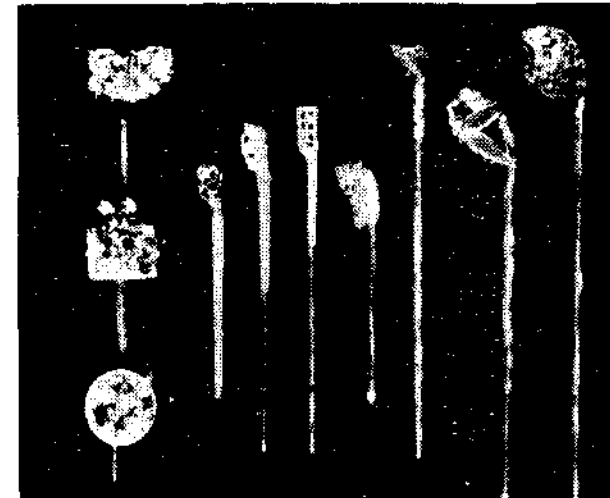
따라서 최고의 美德이 절개였던 조선조의 부녀자들은 다투어 매죽잠을 꾀었고, 壬亂과 丙亂 때에도 이 매죽잠을 꾀고 정절을 나타내는 부인들이 많았다. 따라서 나라에서 烈女門을 내릴 때 하사 한 기념품도 또한 매죽잠이었다.⁵⁷⁾

한편 엷은머리가 풍속을 이루었던 때에 加髻에 치중하였던 유행 심리가 쪽머리의 등장과 더불어 이번에는 비녀의 사치로 옮겨졌다. 조선조 후기로 갈수록, 비녀는 그 재료와 형태가 사뭇 다양해져서, 가히 한 시대의 예술성을 나타낸 공예품이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여기서 조선조 말엽의 비녀의 재료를 보면 금·은·비취·산호·진주·옥·백동·파란 대나무·박달나무·쇠뿔·뼈 등이었으며, 이름도 재료에 따라 금비녀·은비녀·옥비녀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졌다. 또한 비녀머리에는 龍·鳳凰 등 상상의 동물을 비롯하여 鳥類·魚類·木類·草化類 등을 장식하였고, 그 이름도 장식 모양에 따라 龍簪·鳳簪·魚頭簪·菊花簪 등으로 불리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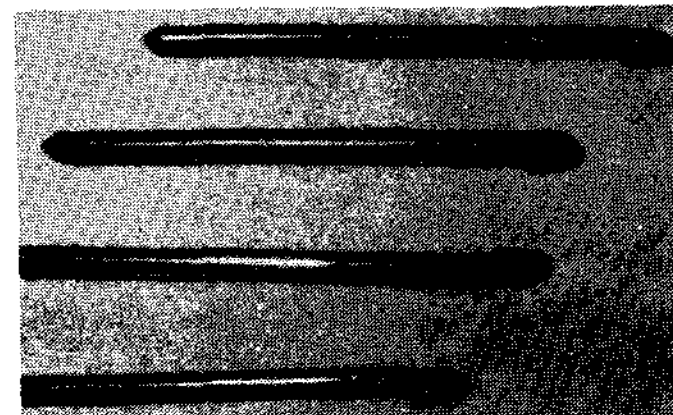
그러나 조선조의 신분 계급의식 때문에 이러한 모든 종류의 비녀가 때와 장소의 구별없이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곧 상상의 동물이 조각된 龍簪과 鳳凰簪은, 당시 神秘主義思想의 영향으로 가장 으뜸으로 평가되어 鳳凰



[그림 18] 용잠(조선시대) 고려대 박물관



[그림 19] 여러가지 비녀(금·은·옥·산호·비취) 석주선 박물관



[그림 20] 은비녀(조선시대) 성신여대 박물관

簪은 주로 王世子妃가, 龍簪은 주로 왕비만이 꾀었다.[그림 18]·[그림 19]·[그림 20] 그밖에 士大夫家에서는 혼례식을 비롯한 각종 의식에 용잠의 사용이 허락되었으나, 서민들에게는 단지 혼례 때만 이것이 허용되었다. 신분에 따른 비녀의 사용은 비단 형태면에서 뿐만 아니라 재료에 따라서도 구분되었다. 곧 金·銀·珠·玉 등의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비녀는 상류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녀 사용의 규제는 조선조를 뒤 흔들었던 사치 풍조로 말미암아 후기에 이르러서는 상·하의 구별없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거가잡복고」의 기록을 보면 이런 사실이 잘 지적되어 있다.

“우리 나라 부인들은 龍과 鳳의 모습으로 簪을 만든 것이 아니면 수치로 여기고 官에서도 그 제도를 금지하지 않아서 문란해졌다.”⁵⁸⁾

2) 땡기

땡기[纒]는 본래 머리털을 둘러서 감춘다는 뜻으로 正纒해 주는 것이라 하여 엷은머리나 쪽을 바르게 해 주는 것이 그 역할이었다. 이밖에 땡기는 남·여·노·소 모두의 首飾品으로 통용되어, 미혼 남·여의 땡은머리·뿔은머리·쌍상투머리를 비롯하여 기혼 남성의 상투머리 등에 두루

57) 黃西根, 韓國裝身具美術研究, 一志社, 1976.

58) 朴珪壽, 居家雜服攷, 卷二, 朴珪壽全集 下, p. 1408.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땡기가 조선조의 각종 修髮形에 장식과 머리털 감춤용으로 쓰인 보기는 여러 문헌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다. 곧 「오주연 문장전산고」에는 “부녀자들이 반드시 두 가닥의 머리를 만들어서 머리 위에다 두르고, 그 끝을 겹쳐서 오른쪽에다 꽂고는 그 나머지 끈을 드리운 것이 마치 「詩經」에 있는 전갈의 꼬리처럼 굽어있고 깃발처럼 휘날린다.” 59)고 하였다. 이것은 엷은머리에 장식된 땡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거가잡복고」에는 “미혼 남·여는 머리털을 둘로 나누어 쌍상투를 하였으니, 두 쪽의 땡기로 각각 그 한 쪽의 머리털을 감추어야 할 것이다.” 60)라고 하였다. 이것은 쌍상투에 땡기가 사용되어야 함을 지적해 준 말이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쪽머리 제도를 논함에 있어 “자기의 머리로서 쪽지고 땡기드리고 비녀를 꽂는 것이 옳다.” 61)고 하여 쪽머리에도 땡기드리는 것이 올바른 풍속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청장관전서」에도 “늙은이는 검은 빛의 비단 땡기를 상투에 감고 玉으로 만든 비녀를 꽂는다. 상투에 사용되었던 땡기는 일명 纒라 하여 옛날에는 남·여가 通用했지만 지금은 남자의 망건이 바로 이런 類이다” 62)고 했다. 이것으로 미루어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망건의 등장과 함께 남자의 땡기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땡기는 이렇게 사용 범위가 넓은만큼,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였다. 먼저 미혼 남·여의 修髮에 사용되었던 땡기를 보면 처녀의 修髮에 드렸던 제비부리땡기가 있고, 총각의 머리에 들었던 黑紗땡기가 있었다. 이 두 종류의 땡기는 모두 땡은 머리의 끝부분에 달았던 것으로, 처녀의 땡기를 제비부리땡기라고 한 것은 땡기의 끝이 ㄷ형으로 제비부리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총각의 땡기는 검은 비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제비부리땡기는 그 길이가 120cm~132cm정도였고, 넓이는 5cm~8cm 정도였으며, 흑사땡기는 이보다 약간 짧고 또 폭도 좁았다. 제비부리땡기와 흑사땡기는 이처럼 크기 면에서 차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에서도 차이

가 있었다. 곧 흑사땡기는 단조로운 반면 제비부리땡기에는 壽福의 글자와 갖가지 꽃·나비·풀무의 등의 금박을 박고 땡기 코에 玉이나 七寶 등으로 장식함으로써 매우 화려하였다.

기혼녀가 사용하였던 땡기 종류로는 엷은머리에 들었던 자적땡기, 쪽머리에 들었던 쪽땡기, 큰머리와 어여머리에 들었던 매개땡기 등이 있었다. 이 중 쪽머리의 일반화와 더불어 유행되었던 쪽땡기는 사용자의 상황이나 연령에 따라 색깔을 달리 하였다. 곧 젊은층은 붉은 색, 노년층은 자주색, 과부는 검정색, 상주는 흰색을 드리는 것이 당시 땡기의 색깔 풍속이었다.

땡기는 혼례복인 활옷에도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드리는 땡기는 큰땡기와 앞땡기의 두 가지가 있었다. 이 중 큰땡기는 머리 위에 매달아 활옷의 위쪽에 드리웠으며, 앞땡기는 비녀의 양쪽 부분에 감아 적당한 길이로 맞추어 양 어깨 앞으로 드리웠다. 큰땡기의 형태는 두 갈래로 되어 있었으며, 넓이는 10cm정도이고 길이는 치마길이보다 약간 짧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큰땡기에는 화려한 금박과 보석 장식을 하게 되는데, 위에는 石雄黃이나 玉板을 달고, 그 밑에는 石雄黃·密花·錦具 등으로 만든 매미 5마리 정도를 달아 두 갈래로 된 땡기를 연결되게 했다. 앞땡기에는 큰땡기처럼 금박을 하고 장식을 하였는데 여기에 사용되었던 보석은 주로 眞珠와 珊瑚였다. 이렇게 장식된 앞땡기는 비단 혼례복뿐 아니라, 다른 禮服에도 사용됨으로써 큰땡기보다 그 쓰임새가 광범위했다.

땡기는 미처 자라지 못한 어린이들의 修髮에도 사용되었다. 곧 도투락땡기가 그것인데 덜 자란 머리를 장식해 주는 것인만큼, 땡기 위에 작은 끈을 달아 그것을 이용하여 뒤통수 끝에 바짝 달아 매주게 되어 있었다. 그 끈의 위치는 직사각형으로 된 도투락땡기를 반으로 접은 지점이며, 접어서 두 폭이 된 부분을 나란히 하여 세모꼴이 되게끔 했다. 도투락땡기의 크기는 사용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현재 온양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실물의 크기는 길이 111.3cm, 넓이 22.

59)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第十五, 東國婦女首飾辨證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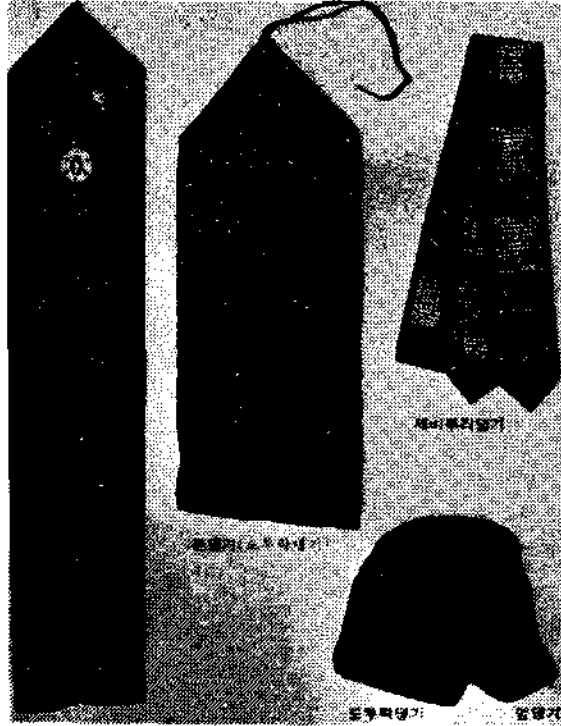
60) 朴珪壽, 居家雜服攷, 卷二, 朴珪壽全集 下, p. 1397.

61) 朴珪壽, 居家雜服攷, 卷二, 朴珪壽全集 下, p. 1397.

62) 李德懋, 青莊館全書, 卷之二十三, 編書雜稿, 宋史劉金列傳.

5cm이다.[그림 21]

당시 어린이용 땡기는 도투락땡기 외에도 말뚝땡기가 있었다. 말뚝땡기는 사용 시기상 대개 도투락땡기와 제비부리땡기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것 또한 뒷머리가 완전히 자라지 않은 상



[그림 21] 여러가지 땡기 (조선시대)

태에서 사용하는 것인 만큼, 땡기 끝에 끈이 달려 있었다. 끈의 위치는 도투락땡기처럼 직사각형의 땡기를 반으로 접은 지점이었다. 그러나 말뚝땡기는 이와는 달리 두 폭으로 접은 부분을 그대로 접쳐 네모꼴이 되게끔 하는 것이 풍속이었다. 한편 3~4세 어린이의 술이 적고 짧은 머리에는 은으로 뱃씨 [梨種]를 만들어 땡기를 양쪽에 부착시킨 것을 장식해 주었다. 장식 방법은 뱃씨를 가리마 중간에 놓고, 양편에서 바둑판 같이 뱃씨땡기를 당겨서 머리털과 함께 종종머리를 땡아춤으로써 어린이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또 앞머리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 주었다.

조선시대의 땡기는 이밖에도 예복에 사용되었던 금박땡기와 서북지방에서 혼례복에 사용하였던 고이땡기⁶³⁾가 있었다. 이 중 금박땡기는 붉은색 비단에 금박으로 글자나 문양을 많이 박은 것이었다. 이때 주로 금박한 글자는 富·貴·壽·福·麟 등이었고, 금박한 문양은 蘭草化였다. 부유층에서는 이 금박땡기에도 몇 개의 보석을 군데군데 붙여 장식함으로써 富를 과시하기도 했다.

고이땡기는 큰땡기처럼 두 갈래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땡기에 비해 그 길이가 길고 화려하면서도 정교한 繡로 장식하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당시 고이땡기의 문양은 오른쪽 가닥에는 모란꽃 세 송이, 왼쪽 가닥에는 十長生, 그리고 땡기의 양 끝에는 마름모꼴의 무늬를 수놓는 것이 상례였다. 이처럼 깊은 정성으로 수놓아진 땡기를, 값비싼 보석으로 간단히 장식한 땡기 대신 서북지방에서 혼례복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 의의도

물론 크려니와 그 지방 사람들의 근검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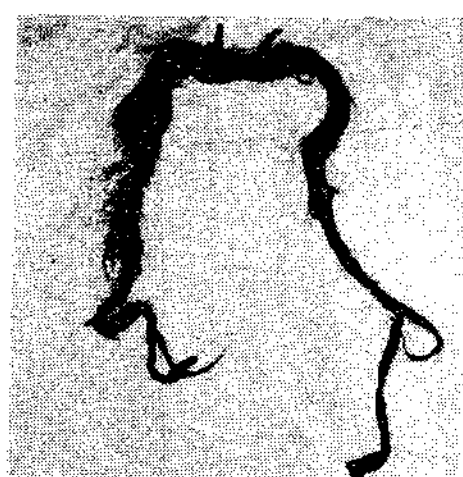
3) 땡잠과 첩지

땡잠과 첩지는 모두 사대부의 예장 때 머리에 장식했던 것으로, 땡잠은 엷은머리가 유행하던 때의 首飾品이고, 첩지는 쪽머리 내지는 족두리 제도와 더불어 생겨난 조선조 특유의 首飾品이었다. 이 중 땡잠은 圓形이나 角形의 玉板에 각종 보석을 꽃모양으로 만들어 아름답게 배치한 후 그 사이에 七寶蜂蝶의 땡쇠를 땡아 動的인 멋을 가미한 것이다. 그 크기는 길이가 10~18cm에서 긴 것은 22~24cm되는 것도 있었으며 넓이는 6~7cm 정도였다. 이러한 땡잠은 대개 상류층의 부녀자가 儀式 때 큰머리나 어여머리의 중심과 양편에 꽂는 것이 당시 풍속으로, 서민녀와는 거리가 먼 首飾品 중의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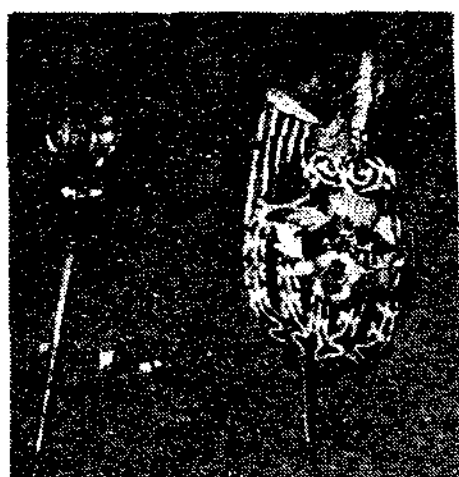
또한 첩지는 鍍金이나 銀 또는 黑角 등으로 봉황새나 개구리의 형상을 만들고 좌·우 양편으로 긴 머리털을 달아 가리마 위에 대고 머리털을 위로 젖혀 쪽에 매게끔 되어 있었다. 이러한 첩지 사용 풍속은 쪽머리가 제도화됨에 따라 허전해진 머리 뒤를 장식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다. 첩지의 역할은 머리 뒤를 장식한다는 것 밖에도 쪽머리의 首飾品으로 등장한 족두리와 화관을 머리 위에 고정시키는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었다.

첩지는 또한 內命婦나 外命婦의 신분을 밝혀주는 중요한 표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宗親은 물론 양반 부녀들도 궁중을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에 알맞는 첩지로 가리마를 장식해 주었다. 여기서 신분에 따른 첩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王妃와 世子妃가 꽂았던 鍍金鳳 첩지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첩지의 앞쪽이 날개를 벌린 形으로 되어 있고 뒤쪽 끝이 휘어져 올라가 있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또한 貞敬夫人들이 꽂았던 鍍金 개구리 첩지가 있었는데, 이것의 특징은 첩지의 앞과 끝이 鍍金되어 있는 것이다. 그밖에 궁중의 각 상궁들이 꽂았던 은으로 된 개구리 첩지가 있었다[그림 22]·[그림 23] 상궁들은 이 첩지를 궁중 자기 처소에 있을 때도 항상 꽂고 있었는데, 그

63) 石宙善, 韓國服飾史, 보진재, 1978. p.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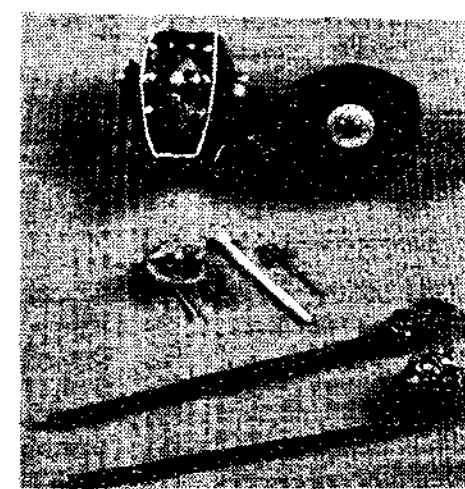
[그림 22] 개구리 첩지 (조선시대) 고려대 박물관



[그림 23] 떨잠(조선시대) 고려대 박물관



[그림 24] 뒤꽂이(조선시대) 온양 민속박물관



[그림 25] 화관과 족두리(조선후기) 온양 민속박물관

이유는 언제 족두리와 화관을 쓸 경우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므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4) 뒤꽂이

머리꽂이에는 앞꽂이와 뒤꽂이가 있는데 뒤꽂이란 엷은머리나 쪽머리 뒤에 덧꽂았던 비녀 이외의 일체의 首飾品을 말한다. 뒤꽂이는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제 뒤꽂이에서 그 기원을 살필 수 있다. 뒤꽂이는 머리 뒤에 꽂았을 때 표면에 나타나는 부분을 나비·鳳·새 등의 동물이거나, 국화·매화·연봉·花葉·天桃 등 꽃의 현상을 주로 조각하였다. 그 명칭은 조각된현상에 따라 나비뒤꽂이·국화뒤꽂이·봉뒤꽂이 등으로 불려지기도 했고, 재료에 따라 비취뒤꽂이·산호뒤꽂이 등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이렇게 만든 뒤꽂이 중 서민 부녀자들에게까지 널리 사용되었던 뒤꽂이는 장식과 실용성을 겸한 빗치개 뒤꽂이와 귀이개 뒤꽂이었다. 본래 빗치개란 빗살 틈에 낀 때를 빼는 한편 가리마를 타는데 쓰였던 修髮 道具의 일종이었으나, 이러한 실용성을 그대로 살린 채 머리 장식에 알맞는 형태로 개조하여 뒤꽂이라 이름했던 것이다.

귀이개 뒤꽂이 역시 귀에지를 파내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살린 채 머리 장식에 사용되었다. 그런데 귀이개 뒤꽂이에는 따로 바늘처럼 끝이 뾰족한 꽃이가 달려 있어 조선조의 부녀자들은 이것으로 상처를 따기도 하고 남편의 腹上 死를 막기도 했다.[그림 24]·[그림 25] 따라서 이 꽃이는 쇠독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 銀으로 만드는 것이 당시의 풍속이었다.

5) 花冠과 簇頭里

화관과 족두리는 모두 쪽머리에 엷었던 首飾品

이었다. 이 중 화관은 본래 唐의 풍속으로 首飾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冠帽였다. 따라서 화관을 처음 받아들인 신라[文武王 때]에서는 이것이 冠帽로 쓰였음은 물론이다. 관모로서의 화관은 고려로 이어져 귀족계급의 예복에 착용되었고, 조선조에서는 잠시 자취를 감추었다가 연산조에 이르러 다시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곧 「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연산군은 “樂人이 首花를 직접 머리에 꽂는 것이 매우 보기 싫으니 冠을 만들되 그 뒤쪽을 터서 엷은머리가 드러날 수 있게 하고, 꽂은 관에 꽂으면 보기 좋을 것이다. 이런 모양의 관을 만들어 들이라 하였다.”⁶⁴⁾고 한다. 이에 신라 때의 冠帽였던 花冠을 연산의 요구에 맞도록 그 형태를 변경시키고, 그 크기를 머리 장식에 알맞도록 축소시킨 것이 조선조의 화관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관은 주로 대궐안진치에서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우었던 女伶·妓女·童妓·樂人·舞人·舞童 등에게 사용되었고, 광해군(1608)이후 한층 성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화관이 일반인들에게까지 풍속을 이루게 된 것은 영조 32년(1756) 婦女髮制改革과 더불어 加髻 대신 족두리와 함께 화관의 착용을 권장하면서부터였다. 따라서 화관 사용의 권장이 加髻 사치를 막기 위함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화관은 날이 갈수록 값비싼 보화로 장식됨으로써, 加髻 사치를 웃도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화관의 사치성은 대소신료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는 花冠類가 髻髮의 폐보다 지나침이 있다⁶⁵⁾는 正祖의 지적과 함께 일반인들에게는 사실상 금제되기에 이

64) 朝鮮王朝實錄, 燕山君十一年 一月 己丑. 「傳曰 樂人首花 直插于髮 甚不好 作冠而虛其上 使髻得以露 出而插花于冠則必好 作此樣以入」

65) 李裕元, 林下筆記, 卷二十三, 華東王穆編.

르렀다.

족두리는 화관보다 훨씬 後代에까지 널리 통용되었던 머리장식품으로, 오늘날에 와서도 재래식 혼례식에 사용되고 있다. 족두리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高宗 18년(1231) 元의 同化政策에 따라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이면서부터이니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를 살펴보면 원 나라에서 왕비에게 古古리라는 것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 冠의 이름으로서 세상에 전해진 것이다. 지금의 족두리라는 것이 고고리와 그 음이 비슷해 혹시 고고리가 訛傳되어 족두리가 된 것은 아닐까?”⁶⁶⁾

이렇게 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冠으로서의 古古리는 고려 귀족들 사이에서 예복에 착용되었는데, 당시의 고고리 형태는 元 世祖后의 雇姑冠과 매우 흡사했다. 고고리는 그 후 족두리로 그 명칭이 바뀌어, 조선조에 와서는 화관처럼 그 형식이 작아지고 아래 위가 밋밋한 형태로 바뀌면서 首飾品으로 사용되었다.⁶⁷⁾ [그림 26] 그러나 조선조 중엽까지만 해도 주로 궁중 여인들 사이에서만 착용되었다. 이처럼 宮中樣式으로서만 그 명맥을 유지해 오던 족두리는 광해조에 이르러 班家の 禮式에 加髻代用으로 쓰게 함으로써 양반가의 부녀자들에게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영조 34년(1758)에 “엷은머리는 禁하고 窩 모양 곧 족두리는 허하되 그 밖의 양식은 모두 금한다.”⁶⁸⁾는 명령과 함께 일반 서민들에게도 족두리의 사용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일반인의 족두리의 사용은 그것이 궁중 양식과 같고 또 비용이 加髻와 맞먹는다는 이유로 곧 폐지되고 말았다. 그러다 正祖 12년(1788)에 쪽머리제의 실시와 더불어 보석이 장식되지 않은 족두리의 사용이 풍속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조의 각종 문헌이 다투어 족두리의 사치성을 논한 것으로 보아, 이것 또한 화관처럼 후기로 갈수록 그 형태가 매우 호화로웠던 것으

로 보인다. 족두리의 사치한 풍속은 비단 문헌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조 말엽 班家の 며느리로 들어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이 규숙의 口述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옛날엔 통통하게 솜을 두어 가지구 가쟁이에 다 뱅 돌려 비취루 나비 천도해 가지구 꾸미는 사람도 있구, 옥으로 꾸미는 사람도 있구, 금으로 꾸미는 사람도 있구, 그래.”⁶⁹⁾

족두리의 문제점은 비단 사치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국 본토의 풍속이 아니라 몽고의 풍속인데다 그 유래 또한 고상하지 못하다는 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족두리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한 문헌의 기록 중 그 대표적인 보기를 「거가잡북고」에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胡人은 본래 말안장으로 집을 삼고는 달리고 쫓는 것으로 생활을 삼았기 때문에 말이 죽으면 불쌍히 여겨서 말발굽을 취하여 그들의 머리 위에 이고 다녔다. 족두리의 모양은 여기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지금 이 말을 믿기는 의문이나 족두리는 그 모양이 고상하지 못하는데다 그 이름 또한 점잖치 못하다……(中略)……娘子頭라는 것을 목 뒤에 엮었기에 이마 위가 텅비는 것을 메우기 위해 족두리를 이마에 엮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갓도 아니고 모자도 아니다.”⁷⁰⁾

이러한 당대 학자들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족두리는 계속 일반인들의 생활 깊숙히 침투됨으로써 그 종류마저 다양하게 되었다. 곧 아래는 둥글고 위는 6각형으로 족두리의 결면을 단지 검은 비단으로 싸주기만 함으로써 검소하게 만든 것을 민족두리라 했고, 여기에 玉板을 밑에 받치고 산호·진주 등의 보석으로 치장한 것을 꾸밈족두리라 했다. 또한 상제가 쓰는 족두리를 흰족두리라 했으며, 어여머리 밑에 사용하는 족두리를 어염족두리라 했다. 이 중 꾸밈족두리는 양반녀를 비롯한 서민녀의 혼례식에 필수품으로 사용되었다.

족두리를 사용한 예로는 이를 읊은 다음과 같은 시조 작품 속에서도 볼 수 있다. “어젯 저

66) 李圭景, 五洲行文長箋散稿, 東國婦女首飾辨證說.

67) 柳喜卿, 한국복식문화사, 敎文社, 1982. p. 290.

68) 朝鮮王朝實錄, 英祖 三十四年 一月 庚子. 「命禁髻髻 許以宮樣 簇頭里 凡諸他樣 并嚴禁」

69) 이 규숙, 이 '계동마님'이 먹은 여든 살, 뿌리깊은나무, 1984. p. 182.

70) 朴珪壽, 居家雜服攷, 卷二, 朴珪壽全集 下. p. 1409. 「娘子頭者既在腦後則頂上空虛乃有小戴非冠非……(中略)」

…胡人本以鞍馬爲家馳逐爲生故馬死則憐之取其蹄而戴之足兜之形印不雅名又不典」

녀에. 老嫗보라 왔든 중이외런데 閣氏네 주는 房簇頭里 버서거는 말것히 이너 松絡을 걸고 그자 왔니?”⁷¹⁾

한편 족두리는 당쟁으로 물들었던 조선조에서 老論과 小論을 구별할 수있는 표시이기도 하였다. 곧 老論家의 부녀자들은 솜족두리를 썼고, 小論家의 부녀자들은 홑족두리를 쓰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또한 노론·소론 그 어느 쪽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집단의 부녀자들은, 노론이 득세할 때는 노론파의 족두리를, 반대의 경우에는 소론파의 족두리를 쓰는 것이 또 하나의 사회 풍속이었다.⁷²⁾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조의 각종 首飾品들은 비녀와 땃기 등 남·여 共用的 首飾品도 물론 있기는 했으나, 대개는 부녀자의 수식품이었다. 부녀자들은 자신의 수식품을 명주 보자기에 고이 싸서 함처럼 생긴 자장괘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사용했고, 또 며느리나 딸에게 물려주기도 했다.

3. 首服의 禮儀風俗

조선왕조 正祖 때의 학자 이 덕무는 일찌기 ‘梳銘’이란 詩에서 빗질이 주는 즐거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빗질하기 전에는 유익한 줄을 몰랐더니 / 빗질한 후에는 문득 몸에 이익됨을 알겠네 / 기운이 채워지고 마음이 편안하여 즐거움이 무궁하리”

이처럼 머리 빗는 것을 생활의 일부분인 동시에 즐거움으로 삼았던 조선인들이다. 그러나 엄격한 규범과 예절이 생활의 전부였던 조선조였던만큼 이러한 빗질의 즐거움 뒤에는 지켜야 할 많은 예의 범절이 뒤따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는 반드시 빗질하고 땃기와 비녀와 상투를 틀어야……”했으며, “미성년자는 닭이 처음 울면 모두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머리 빗고 땃기를 드리고 容臭〔향주머니〕를 차는 것”

⁷³⁾이 首服의 기본적인 예의였다.

그러나 조선조의 首服 예의는, 반드시 머리 형태를 단정하게 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곧 상투머리의 경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땃기로 상투를 싸매서 가리워 버리지만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땃기를 풀어버리고 상투를 드러내는 것”⁷⁴⁾이 당시의 기본적인 예의요, 풍속이었다. 아울러 부모가 병중일 때는 의관 쓴 머리를 빗지 말아야 했고, 땅은머리의 경우도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머리를 촘촘하게 땅지만 나쁜 일을 당했을 때는 느슨하게 땅는 것이 예의였다.⁷⁵⁾

한편 어버이에 대한 효도를 매우 중히 여겼던 조선조에서 父母喪은 가장 경건하고 예의 바르게 치루어야 할 어려운 일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부모 “喪을 당하였을 때 자식이 갖추어야 할 首服의 예의도 매우 까다로웠다. 「거가잡복고」에 따르면 喪中의 首服을 髻髮免髻라 하여, 삼이나 베로써 목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마 가운데 와서 교차시킨 후 이것을 다시 위로 돌려 상투를 둘러준다”고 했으며, “대머리일 경우는 땃기를 그냥두고 무좌를 얹는다.”고 했다. 이어 “시집간 여자는 자식으로서 그 친정 부모를 위하여 머리 달린 惡笄〔빋비녀〕를 꽂았다가 졸곡을 마친 뒤에 자식의 입장으로 그 비녀의 머리를 문질러 버리고 다만 그 비녀의 몸만 꽂는다.”⁷⁶⁾고 했다.

首服의 예의는 비단 修髮의 형태 뿐아니라, 청결도 문제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특히 조상의 제사를 받들 때는 깨끗한 머리털을 그 첫째로 꼽았다. 그리하여 누구의 머리털로 만든 것인지도 모를 각종 가발이 난무하던 조선조에서 “선비의 아내는 제사를 지낼 때 다리를 얹지 못한다”⁷⁷⁾는 首服의 예의가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제사를 위해 음식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서 먼지나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음식의 부정을 막았다. 그밖에 조선조 남성들의 중요한 首服이었던 망건과 갓에 대한 예

71) 鄭丙昱編, 時調文學事典, 新丘文化社, 1966. p. 456.

72) 黃沔根, 韓國裝身具美術研究, 一志社.

73) 禮記, 內則條, 男女未冠笄者鷄初鳴咸 盥漱櫛纒.

拙考, 古代 미혼남녀의 服裝裝飾考, 대한가정학회지 16권 4호 1978.

74) 朴珪壽, 居家雜服攷, 卷二, 內服, 朴珪壽全集 下. p. 1445.

75) 昭惠王后, 內則, 孝親條 參照.

76) 朴珪壽, 居家雜服攷, 卷二, 內服, 朴珪壽全集 下. pp. 1445~1458.

77) 朴珪壽, 居家雜服攷, 卷二, 內服, 朴珪壽全集 下. p. 1393. 「士之妻祭於其家不敢服髻而纒笄而已」

의도 대단히 철저하였다. 「청장관전서」에 따르면 “망건을 쓸 때는 바싹 죄어 매어 이마에 눌린 흔적이 있어서는 안되며 늘어지게 매어 귀 밑에 흘러진 털이 있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또, “선비는 아무리 바쁘고 권태롭다 해도 항상 갓을 써야 한다”⁷⁸⁾고 했다.

망건과 갓에 대한 이와 같은 철저한 예의 풍속은, 망건과 갓으로 머리를 整齊하는 일이 조선조 선비들의 기본적인 예절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Ⅲ. 結論

이상 首服의 풍속에서 修髮과 首飾 및 갓에 대한 풍속을 살펴보았다. 수식의 풍속은 다시 毛髮管理, 修髮道具, 首飾의 예의 등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먼저 모발관리는 검으면서도 길고 윤기있는 머리로 가꾸고자 주력하였는데 여기에 쓰여진 것은 대개 호도깍질, 참깨, 창포, 새알 등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머리에 많은 영양을 줄 수 있는 것들로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현대인의 모발보호에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수발도구로는 열레빗, 참빗, 상투머리에 사용되었던 살짜밀이[歛髮簪]가 있었음을 살폈다. 이상의 도구로 빗은 당시 남·여의 머리 형태가 여자의 경우 純祖 중엽[1820]까지 엷은머리가 대중을 이루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쪽머리였으며, 남성의 머리는 시종일관 상투머리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미혼 남·여의 머리는 대개 땅은머리였는데, 지역이나 가문에 따라 묶은머리, 쌍상투머리 등이 풍속을 이루고 있었음을 살폈다. 그런데 여성의 쌍상투머리는 두 개의 상투가 처음에는 정수리를 중심으로 하여 양편에 있던 것이 차츰 아래로 내려온 것이 특징이었고, 이것은 물동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건을 머리에 이고 다녔던 당시의 生活方式와 관련된 것으로 유행이 생활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케 했다. 또한 머리털이 채 자라지 않은 어린 소년, 소녀의 角과 羈라는 각기 다른 형태의 황새머리 풍속을 통해 조선조가 일찍부터 수발형태로 남·여의 구별을 하였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수발형태에는 이밖에 다래, 낭자 등으로 불리웠던 일련의 가발풍속과 땡기·비녀·뒤꽂이·簇頭里·花冠 등에 관해 고찰하였는데, 여기서는 엷은머리가 풍속을 이루었던 때에 加髻에 치중했던 유행심리가 쪽머리의 등장과 더불어 이번에는 비녀·족두리·화관·땡기 등, 首服 사치로 옮겨져 갔으며 머리는 뒷목에서 저고리고대 위로 느러지는 등 여러 가지 유행상의 변형을 살필 수 있었다.

수복의 예의풍속에서는 반드시 머리를 정갈하고 단정하게 빗는 것만이 예의의 전부가 아니었고 곧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땡기로 상투를 싸매서 가리지만,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상투를 풀어내야 하는 것이 당시의 예의풍속이었다. 또한 머리를 땅을 때도 나쁜 일을 당했을 때는 느슨하게 땅아야 했고 여성의 쪽머리 경우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비녀의 종류를 달리 꽂아야 했다. 이밖에 조선조 선비들의 기본적인 수복이라 할 수 있었던 網巾과 갓[笠]도 철저한 예의풍속이 낳은 결과임을 확인했다.

이 기회에 필자는 服飾用語의 定立이 시급함을 절실히 느끼고 하나를 문제의 제기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의 제목인 ‘首服’이란 용어에 대하여 논란이 되었지만 흔히 首飾이나 頭飾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머리장식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修髮이나 冠帽 그밖의 쓰개류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가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용어의 복잡성은 후학들의 복식연구에 많은 불편을 주며 한국복식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복식용어의 定立이 정착되어야 하겠다.

78)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二十七, 士小節 第一, 士典一 服飾.